636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304번길 10
Tel. 064.801.1400 **E-mail.** admissions@sjajeju.kr

ST JOHNSBURY ACADEMY JEJU

AN INTRODUCTION TO
THE COLLEGE COUNSELING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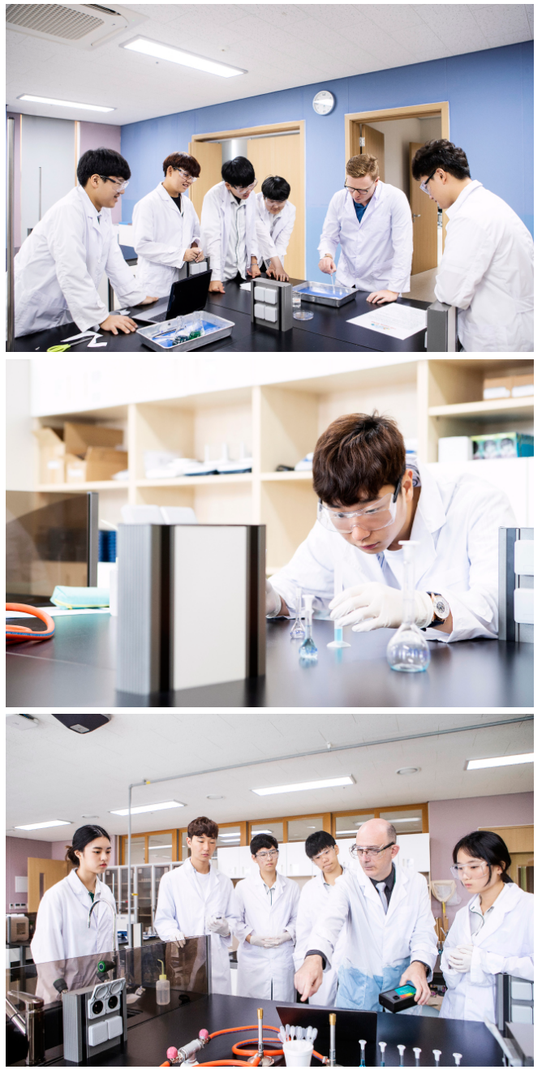




대학입시 상담 안내

SJA Jeju는 대학입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학업능력과 희망진로, 적성과 관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시 전담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고유한 능력과 관심을 탐색하고 향상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SJA Jeju에서는 대학입시 전담 상담교사가 학생들을 일대일 면담하여 학생의 진로에 가장 적합한 대학의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합니다.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과 잠시 갭이어(Gap year)를 가질 학생 모두 이 정보를 토대로 관심분야에 필요한 학업능력을 연마하고,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대학은 몇 군데 지원하는 것이 적당한가요?

목표 대학을 고를 때에는 우리 학교의 진로 지도 프로그램인 'CIALFO' (Citius Altius Fortius)를 활용해 목표 대학을 추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SJA Jeju는 12+2 시스템을 고안하여 제출하는 지원서 수를 14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할수록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지원하는 대학마다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목표 대학을 정할 때는, 지금 성적과 관계 없이 반드시 가고 싶은 희망 대학 1-4개, 지금 성적에 맞춰 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4-6개, 지금 성적이면 여유롭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 3-4개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들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단지 상위 50위 안에 드는 대학이니까 가야겠다는 식의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의 캠퍼스를 미리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캠퍼스를 구경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되면 대학의 입시 담당자와 면담하거나 그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선배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대학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대학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Q2. 미국 대학의 경우 얼리 액션(Early Action)이나 얼리 디시전(Early Decision)과 같은 조기전형으로 지원하면 더 유리한가요?

많은 미국 대학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얼리 액션이나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합격률 면에서 좀더 유리할 수도 있고, 해당 학교에 대한 정보를 다른 학생들보다 일찍 알아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얼리 액션이나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예전보다는 합격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추세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얼리 액션이나 얼리 디시전을 통해 선발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내신 성적이 좋고,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의 원서 마감일(매년 11월 1일 또는 11월 15일) 전에 외부시험(SAT/ACT, TOEFL 등)에서 좋은 성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얼리 액션이나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하는 것이 합격하는데 좀더 유리합니다.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의 차이점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리 디시전 전형으로 특정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학으로 진학해야 하는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얼리 액션 전형은 합격/대기/불합격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조기전형일 뿐 반드시 합격한 대학으로 진학할 필요는 없습니다.











Q3. AP(Advanced Placement) 과목을 많이 수강하면 합격에 도움이 될까요?

위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AP 수업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AP 과정은 대학교 수준의 수업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강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AP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AP 수업을 듣고 싶은 이유와 시점에 대해서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AP 학점은 향후 대학교 학점에 포함 되며, GPA(Grade Point Average)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된 후에 수강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AP 과목을 수강하며 대학교 수준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이력을 가진 학생의 성적표는 대학 입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들은 AP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학생의 학업수준과 흥미 분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이 그저 합격을 위해 최대한 많은 AP 과목을 수강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시험성적 결과보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따라서 SJA Jeju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AP 과목들을 살펴보고, AP 과목의 수를 늘려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학생의 GPA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4. 미국 대학은 입시에서 학생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대학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입니다. 학생의 GPA를 필두로 자신의 관심에 부합하고 도전적인 과목을 들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으로는 교외활동, 각종 수상 여부를 참조하고, 어떤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는지, 학교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대학이 입시에서 요구하는 에세이(Personal Statement, Common Application Essay)는 합격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만의 목소리를 담아 에세이를 잘 작성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추천서 역시 대학이 학생의 학업능력과 성격, 태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중요합니다. 간혹 부모의 동문 여부, 학생의 문화적·인종적 배경이나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SAT/ACT, TOEFL 등 외부 시험성적이 성적을 고려되기도 합니다.

Q5. 에세이(Personal Statement, Common Application Essay)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에세이를 쓸 때는 입시 전 여유를 두고 일찍 시작하여, 초고를 쓰고, 고쳐나갈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세이는 주제가 발표되는 11학년 2학기에 쓰기 시작해 그 다음 여름방학까지 수정을 거듭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11학년 2학기에는 에세이 쓰는 법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에세이는 시간 여유를 두고 작성을 시작하여 학생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11학년과 12학년 사이의 여름방학에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비 12학년 학생들은 여름 방학 동안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서 자원활동이나 인턴십 또는 그 밖의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가고 싶은 해외대학이 있을 경우, 여름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해당 대학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 캠퍼스를 직접 가보면 대학을 선택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SAT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경우라면, 여름 방학을 SAT를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학년이 되면 SAT를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세이 역시 여름방학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12학년이 되면 학업, 원서 준비,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에세이를 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2학년은 고등학교 4년 중 가장 바쁜 때입니다. 따라서 12학년을 맞이하기 전 여름방학에 해야 할 일들을 가능한 한 많이 끝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